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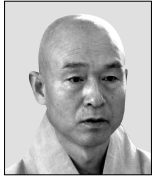
일 주 문



민추본 26차 월례강좌
법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
부장 스님은 5월 26일 오후 7시 템
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26차 월례강좌를 개최한다.



탄허대종사 회초대회
정법 광장 월정사 주지 스님은 5
월 30일 경내에서 '제12회 탄허대
종사 선사 함양 전국회초대회'를
개최한다.



불교문화교육관 기와 상량
영배 양산 통도사 주지 스님은 5
월 9일 경내 신축 불교문화교육관
(선원) 기와 상량식을 봉행했다.



생일방생법회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5월 24일 경내 정릉루에서 '생일방
생법회'를 봉행한 뒤 가평 방하리
서 방생을 했다.



제7회 경기 연꽃문화제
성행 의왕 청계사 주지 스님은 5
월 29일 오전 10시 청계사 일원에서
'제7회 경기 연꽃문화제'를 개
최한다.



2016 KBUF 영부디스트 캠프
박태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8월 4-7일 공주 마곡사 일대에서
'제7회 2016 Young Buddhist
Camp'를 개최한다.

윤장섭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별세

5월 15일, 향년 94세... 불교식 장례 치러

호림박물관 설립자인 윤
장섭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사진>이 5월 15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개성 출신인 고인은 그동안
유화증권과 성보실업을
세웠고 문화재 1만5000여 점
을 수집했다.

개성공립상업학교 재학 시절 개성박물관장을 지
낸 고유섭 씨의 특강을 듣고 문화재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1982년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호림박물관
을 건립했으며 특히 해외 유출 불교문화재 환수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호림박물관은 현재 40여 점의 불교문화재를 소장
하고 있으며 최근 소장품 '교려 수월관음보살도'가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윤 이사장의 장례식은 불교
식으로 진행됐으며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이
주모했다. (02)3010-2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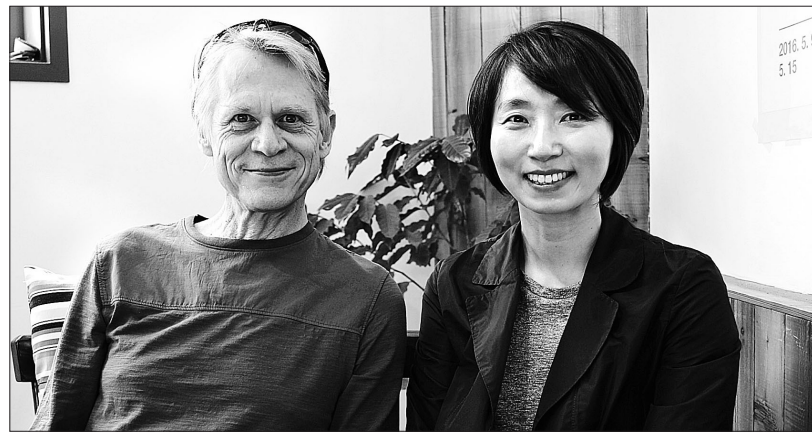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佛法, 삶에서 마주할 때 빛나”

Interview

Street Zen 보급하는
존 뷰드리·권선아 부부



“불교 가르침은 경전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할 수 있어야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스스로 질문
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
요합니다. 여기에 세대나 직업 등이 걸림
돌이 돼선 안 됩니다.”

2010년부터 스트리트 젠(Street Zen)
을 보급해오고 있는 존 뷰드리(John
Beaudry)·권선아 씨 부부<사진>. 스트
리트 젠은 불교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에 적용해 마음챙김·해결방법
을 찾아가는 수행이다. 이들 부부는 5월
24일 서울 필동에 위치한 인문의역학연구
소 감이당 베어하우스에서 새 영어강좌
‘Street Zen-거리에서 니르바나를 찾다’
를 개강했다.

스트리트 젠은 우리나라 산중불교를
표현한 마운틴 젠(Mountain Zen)과 대
비되는 것으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불
교를 강조한다. 즉 자칫 세속과 멀게 느껴
질 수 있는 불교를 대중과 가까이 소통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존 뷰드리 씨는 “선(禪)의 요체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다만 현대적 접근법
에 있어 방편을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
다”며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무엇을 필

일상생활 문제에 禪 적용해
마음챙김·해결방법 직접 찾아
개개인 역량 키우는 데 초점

요로 하는지 알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스트리트 젠은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고통에 대해 선이 실질적
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지에 집중
한다. 참가자들이 각자의 속내를 털어놓
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우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식에서 출발하
되 결코 회피하지 않고 문제와 직면한다.
이 때문에 참가자들도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권선아 씨는 “강좌는 적극적인 참여형
식으로 진행된다. 위로를 위한 ‘힐링’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해 참여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면서 “진지하
지만 결코 무겁지 않은 방법으로 스스로
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번 강좌는 Zenkei Blanche Hartman
의 저서 <Seeds for a Boundless Life>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7월 12일까지 8주간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며 경계·집
착·습관·상실과 변화·받아들임 등 삶
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수
업은 텍스트 읽고 문답하기, 자신의 경험
에 대한 토론, 해결책과 수행방법 탐색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들 부부는 조계종국제불교학교 교수
를 역임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
승가대에서 포교영어·불교영어 등의 강
의를 진행 중이다.
윤호섭 기자



“불교 이끌 미래 인재 돼 달라”

조계종 교육원, 소년·청년출가자 장학금 전달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5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
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강실에서 소년 및 청년출가자 중
2016년 동국대 불교대학생으로 재학 중인 학인들에게 장학금
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2014년 이후 출가자부터 해당되며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입학금, 수업료)이 지급된다. 2016년도 1학기 혜택을
받는 학인스님들은 중앙승가대 8명, 동국대 13명 등 총 21명
이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이전과는 출가 분위기와 환경이 많
이 달라졌다.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젊은 인재인 만큼
열심히 공부해 종단과 한국불교에 필요한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불자 소설가 한강, 맨부커상 수상

중단편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 ‘영예’

노벨문학상, 공쿠르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평가받는 맨부커상 인터
내셔널 부문에 불자 소설가 한강 씨(46,
사진)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내 작가
가 해외 주요 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한
씨가 처음이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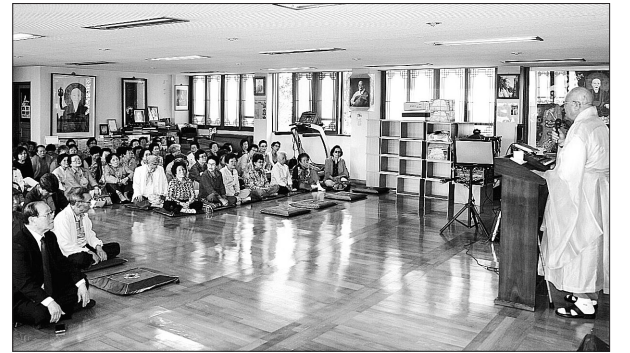
맨부커상 선정위원회는 5월 16일(현지
시간)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
자리에서 한 씨의 수상을 발표했다. 수상작은 한 씨가 2004년
발표한 소설 ‘채식주의자’(영문판 제목 ‘The Vegetarian’)
이다. 이 책을 영어로 옮긴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 씨도 함께
수상자로 선정됐다.

‘채식주의자’는 폭력에 대항해 스스로 나무가 되고자 햇빛
과 물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다. ‘채식주의자’,
‘몽고반질’, ‘나무 불꽃’ 등 소설 3편을 하나로 연결한 연작
소설집으로 주인공 여성과 그의 형부, 언니의 시점에서 각각
쓰였다. 이중 ‘몽고반질’은 2005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한편 한 씨의 부친은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진 소설가 한승
원 씨다. 한 씨 역시 부친의 영향을 받아 1994년 등단 이래 ‘아
기부처’와 같은 불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써왔다.

현성정사, 봉축 기념 경로잔치

5월 17일, 어르신 150여 명 참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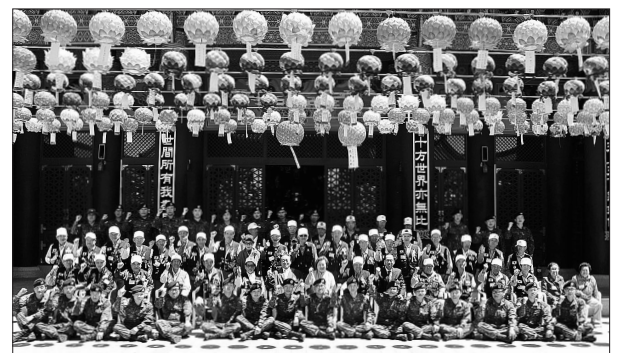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5월 17일 서울 흥은동 현
성정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경로잔치에는 1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으며
현성정사 측은 국수공양과 함께 어르신교통비 각 1만원을
제공했다.

노덕현 기자

6.25 참전유공자에 성금 전달

(재)신원불교재단, 65명에 1300만원



(재)신원불교재단(이사장 이용국)은 5월 14일 부처님오
신날을 맞아 영월군 만봉사·만봉문화박물관에서 봉축법
요식을 봉행하고, 6.25 참전유공자 및 유공자 45명과 김삿
갓면 저소득 이웃 20명에게 성금 총 1300만원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저소득 어르신 위한 ‘봄 김장’

중림福, 신한카드 함께... 80가구 후원



중림종사회복지관(관장 이은희)은 5월 13일 관내 1층
야외주차장에서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봄 김장하기’를 개
최했다.

이날 복지관 및 신한카드 임직원 50여 명은 배추김치
200kg, 열무김치 150kg을 담가 저소득 가정 80가구에 전달
했다. 또한 50여 명의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Table with 4 columns: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2 학교소개

-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반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5월 31일까지
수시전형

5 문의처

-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